2024
고1 국어
천재(이)

고1 국어 천재(이) | 4(1)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최다 빈출되었습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을 <보기>로 제시하고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지문을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 제1, 14, 15, 17, 19, 20, 23항 규정을 반드시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1.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① '걸-'에 '-음'이 붙어 형성된 단어를 '걸음'으로 적지 않고 '거름'으로 적는 것은 제1항과 제19항이 모두 적용됐기 때문이다.

② '하늘', '구름'으로 적는 것은 제1항의 '소리대로' 표기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③ '값도'를 [갑또]로 적지 않고 '값도'로 표기하는 것은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④ '꽃이'를 [꼬치]로 적지 않고 '꽃이'로 표기하는 것은 제14항이 적용된 경우이다.

⑤ '적는'을 [정는]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제15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2. 다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가 붙는 경우에는 앞말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① '먹이'와 '놀이'는 '-이'가 명사의 뒤에 붙어서 된 말이므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② '왕눈이'와 '집집이'는 '-이'가 붙어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각 형태를 밝혀 적는다.

③ '귀머거리'와 '주검'은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④ '마중'과 '무덤'은 각각 '-웅'과 '-엄'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⑤ '바가지'와 '지붕'은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3. 다음 <보기>에 제시된 규정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가 붙는 경우에는 앞말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규정	예
①	제19항	엮음
②	제19항	깊이
③	제19항의 [붙임]	얼음
④	제20항	절름발이
⑤	제20항의 [붙임]	이파리

4.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1>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보기2>

오늘 급식으로 국물 떡볶이와 야채 튀김을 먹음.

① '먹음'은 제15항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② '튀김을'은 제14항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③ '급식'은 소리대로 적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④ '떡볶이와'는 제15항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⑤ '오늘'은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5. <보기1>, <보기2>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보기1>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먹이 (㉠) 같이 (㉡)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마중 (㉢) 부터

<보기2>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집집이 (㉣)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바가지 (㉤)

학습자료의 모든 것 EBS 분석·변형문제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	㉡	㉢	㉣	㉤
①	다듬이	익히	마개	꿀꿀이	끄트머리
②	다듬이	익히	마개	꿀꿀이	부터
③	졸음	먹이	마개	겹겹이	마중
④	졸음	먹이	마감	낱낱이	자주
⑤	졸음	굳이	자주	낱낱이	이파리

6.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1>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보기2>

ㄱ. '일찍이'는 제25항 1에 해당하는 예이다.
ㄴ. '꾸준히'는 제25항 1에 해당하는 예이다.
ㄷ. '더욱이'는 제25항 2에 해당하는 예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보기1>의 밑줄 친 발음 표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때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기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1>

ㄱ. 이것은 [솜사탕이요].
ㄴ. 내가 그리로 [가지요].
ㄷ. 나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삼].
ㄹ.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ㅁ. 그는 건물 안으로 [드러가] 눈앞에서 [사라졷따].

<보기2>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제15항 [붙임 1-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과,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 **제15항 [붙임 1-2]:**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15항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제15항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① ㄱ - 제15항 [붙임 3]
② ㄴ - 제17항
③ ㄷ -제14항
④ ㄹ - [책이요]-제15항 [붙임 3], [붓이요]-제17항
⑤ ㅁ - [드러가]-제15항 [붙임 1-1], [사라졷따]-제15항 [붙임 1-2]

8. <보기1>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보기2>의 ㉠~㉤에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1>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분하여 적는다.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학습자료의 모든 것 EBS 분석·변형문제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보기2>

▪ 나는 모퉁이를 ㉠<u>돌아</u> 큰길로 나갔다.
▪ 시골과 도시는 건물의 ㉡<u>높이</u>부터 달랐다.
▪ 산책을 하면서 ㉢<u>꺾은</u> 꽃을 꽃병에 담았다.
▪ 잔칫집에 갔더니 ㉣<u>손이</u> 많이 가는 음식이 많았다.
▪ 나는 그를 ㉤<u>믿음</u>으로써 정신적 혼란에서 벗어났다.

① ㉠: 제14항
② ㉡: 제15항
③ ㉢: 제19항
④ ㉣: 제15항
⑤ ㉤: 제15항

9. 다음 <보기1>의 단어를 <보기2>의 맞춤법 규정과 바르게 연결한 것을 <u>모두</u> 고르면?

<보기1>

개구리, 손톱깎이, 무덤, 웃음, 꿀꿀이, 마중, 끄트머리, 마개, 지붕, 겹겹이

<보기2>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3항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① 개구리	- 제23항 [붙임]	손톱깎이	- 제19항
② 무덤	- 제19항	웃음	- 제19항
③ 꿀꿀이	- 제23항 [붙임]	마중	- 제19항
④ 끄트머리	- 제20항 [붙임]	마개	- 제19항
⑤ 지붕	- 제20항 [붙임]	겹겹이	- 제20항

10. 다음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u>못한</u> 학생은?

<보기>

학생: 선생님, 그럼 제19항, 제20항에서는 왜 특별히 '-이'나 '-음/-ㅁ'이 붙는 경우에 앞말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정한 것인가요?
선생님: 그것은 '-이'나 '-음/-ㅁ'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즉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그런데 선생님, '노름하다' 할 때의 '노름'은요, '놀-'에 '-음'이 붙어서 된 말 아닌가요? 그런데 왜 소리 나는 대로 적나요?
선생님: 그것은 '노름'이 어원상으로는 '놀-'과 관련이 있으나 '도박'을 의미하는 말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① 가희: '목거리(목병)'는 원래 뜻에서 멀어져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겠군요.
② 나희: '이따가'는 원래 뜻에서 멀어져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겠군요.
③ 다희: '같이'는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가 붙어서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요.

무단배포금지

④ 라희: '거름'은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가 붙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겠군요.
⑤ 마희: '고랑'은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가 붙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겠군요.

11.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

예 먹어(○)/머거(×), 좋고(○)/조코(×)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예 벌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예 사라지다, 쓰러지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

예 이리로 오시오.

① '울어서 눈이 빨개졌다.'에서 '울어'로 적는 것은 ㉮의 '먹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② ㉮를 보니, 어간이 표시하는 의미와 어미가 표시하는 의미가 쉽게 파악될 수 있게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군.
③ '진실이 드러나다.'에서 '드러나다'로 적는 것은 ㉯의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④ '균형이 틀어지다.'에서 '틀어지다'로 적는 것은 ㉯의 '벌어지다'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⑤ '이것은 책이 아니오.'에서 '아니오'로 적는 것은 ㉰의 '오시오'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12.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단어들의 표기 원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 한글 맞춤법의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중 일부

ⓐ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먹이, 걸음, 같이, 익히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노름, 목거리

ⓒ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무덤, 부터

① '묶다'에서 파생된 '묶음'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② '밝다'에서 파생된 '밝히'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③ '막다'에서 파생된 '마감'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④ '열다'에서 파생된 '무녀리'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⑤ '죽다'에서 파생된 '주검'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무단배포금지

13. 한글 맞춤법 조항의 내용과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한글 맞춤법 조항	예
①	'ㄷ, ㅌ' 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같이 해돋이
②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나머지 바가지
③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을 꽃만
④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노름 목거리
⑤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값지다 높다랗다

14. 다음의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 및 예시와 <보기>의 ㉠~㉢의 연결이 모두 적절한 것은?

<보기>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u>**소리대로 적되**</u>, ㉡<u>**어법에 맞도록 함**</u>을 원칙으로 한다.

①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예 밭도, 여덟이, 옷에	㉠
②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예 좋고, 읊으니, 좇아	㉡
③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몫몫이, 실없이, 샅샅이	㉡
④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바깥, 바가지, 싸라기	㉡
⑤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귀머거리, 코끼리, 거름	㉠

최다 빈출 유형 2

교과서에 제시된 지문을 바탕으로 우리말 표기의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가 빈출되었습니다. 특히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 제14, 15, 19, 20항을 적용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교과서 지문을 바탕으로 우리말 표기의 기본 원리를 반드시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15~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밑이 무거워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뚝오뚝 일어서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난감의 이름을 '오뚜기'와 '오뚝이' 중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한글은 소리글자이므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즉 발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 ', ' '를 의미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소', '나무'로 적습니다.

그런데 '꽃', '먹-'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음운 환경에 따라 '꽃이[꼬치]', '꽃만[꼰만]', '꽃도[꼳또]', '먹어[머거]', '먹는[멍는]', '먹지[먹찌]' 등으로 각각 다르게 발음됩니다. 이렇게 달리 발음되는 단어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무단 배포 금지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걸-'에 '-음'이 붙어 형성된 단어를 '걸음'으로 적지 않고 '거름'으로 적는 것은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맞으나 제19항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제19항은,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어법에 맞도록 함'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19항 [붙임] 조항은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걸- + -음'의 접미사 '-음'은 제19항 [붙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하늘'은 [하늘]로, '구름'은 [구름]으로 발음되므로, '하늘', '구름'으로 적는 것은 제1항의 '소리대로' 표기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③ '값도'를 '갑또'로 적지 않고 '값도'로 표기하는 것은,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지라도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④ '꽃이'를 '꼬치'로 적지 않고 '꽃이'로 표기하는 것은 체언과 조사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제14항이 적용된 경우이다.

⑤ '적는'을 '정는'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제15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2. 정답 ①

'먹이'와 '놀이'는 '-이'가 명사의 뒤에 붙어서 된 말이 아니라,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된 말이다.

② '왕눈이'와 '집집이'는 '-이'가 붙어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20항 규정에 따라 각각 형태를 밝혀 적는다.

③ '귀머거리'와 '주검'은 각각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 '-어리', '-엄'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제19항 [붙임] 규정에 따라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④ '마중'과 '무덤'은 각각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 '-웅'과 '-엄'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19항 [붙임] 규정에 따라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⑤ '바가지'와 '지붕'은 각각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 '-아지', '-웅'이 붙어서 된 말로, 제20항 [붙임] 규정에 따라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3. 정답 ③

'얼음'은 용언의 어간 '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제19항의 [붙임] 규정이 아니라 제19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① '엮음'은 용언의 어간 '엮-'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제19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② '깊이'는 용언의 어간 '깊-'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제19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④ '절름발이'는 명사 '절름발'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제20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⑤ '이파리'는 명사 '잎'에 접미사 '-아리'가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은 제20항의 [붙임] 규정에 따른 것이다.

4. 정답 ①, ②

① '먹음'은 용언의 어간 '먹-'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한 것으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는 제15항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② '튀김을'은 명사 '튀김'에 조사 '-을'이 결합한 것으로,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는 제14항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③ '급식'의 표준 발음이 [급씩]이므로 소리대로 적는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항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④ '떡볶이와'는 명사 '떡볶이'에 조사 '-와'가 결합한 것으로, 제15항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 아니라,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는 제14항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⑤ '오늘'의 표준 발음이 [오늘]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는다는 제1항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무단 배포 금지

5. 정답 ⑤

㉠: '다듬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고, '졸음'은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모두 ㉠의 예로 적절하다.

㉡: '익히'는 어간에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고, '굳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만, '먹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마개'는 어간 '막-'에 접미사 '-애'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고, '마감'은 어간 '막-'에 접미사 '-암'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고, '자주'는 어간 '잦-'에 접미사 '-우'가 붙어서 부사로 바뀐 것이므로 모두 ㉢의 예로 적절하다.

㉣: '겹겹이'는 명사 '겹겹'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고, '낱낱이'는 명사 '낱낱'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만, '꿀꿀이'는 부사 '꿀꿀'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꼬트머리'는 명사 '끝'에 접미사 '-으머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고, '이파리'는 명사 '잎'에 접미사 '-아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하지만 '부터'는 어간 '붙-'에 접미사 '-어'가 붙어서 조사가 된 것이고, '마중'은 어간 '맞-'에 접미사 '-웅'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고, '자주'는 어간 '잦-'에 접미사 '-우'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보기2>의 ㉠~㉤에 들어갈 예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⑤번이다.

①, ②, ③, ④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④

ㄴ. '꾸준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 '꾸준'에 접미사 '-히'가 붙는 경우로 제25항 1에 해당하는 예이다.

ㄷ.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로 제25항 2에 해당하는 예이다.

따라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④ 'ㄴ, ㄷ'이다.

ㄱ.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로 제25항 2에 해당하는 예이다.

7. 정답 ②, ⑤

② ㄴ.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가 결합된 것으로 제17항 규정에 따라 '가지요'로 적는다.

⑤ ㅁ. '들어가'는 용언 '들-'과 용언 '가-'가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된 것으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제15항의 [붙임 1-1] 규정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들어가'로 적는다. 이와 달리 '사라졌다'는 두 개의 용언 '살다'와 '지다'가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되었으나 앞말 '살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제15항의 [붙임 1-2] 규정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사라졌다'로 적는다.

따라서 밑줄 친 발음 표시 부분을 맞춤법에서 맞게 표기할 때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기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②, ⑤이다.

① ㄱ. '솜사탕이오'는 종결형 어미 '-오'에 해당하므로,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15항의 [붙임 2] 규정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솜사탕이오'로 적는다.

③ ㄷ. '삶'은 어간 '살-'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된 것으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는 제15항 규정에 따라 '삶'으로 적는다.

④ ㄹ. '책이요'는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에 해당하므로 제15항의 [붙임 3] 규정에 따라 '이요'로 적는다. '붓이오'는 종결형 어미 '-오'에 해당하므로,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15항의 [붙임 2] 규정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붓이오'로 적는다.

8. 정답 ⑤

'믿음'은 어간 '믿-'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으로 제19항 규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① '돌아'는 어간 '돌-'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으로 제15항 규정에 따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② '높이'는 어간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으로 제19항 규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③ '꺾은'는 어간 '꺾-'에 어미 '-은'이 결합된 것으로 제15항 규정에 따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

하여 적는다.
④ '손이'는 명사 '손'에 조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제14항 규정에 따라 체언은 조사와 구분하여 적는다.

9. 정답 ①, ⑤
① '개구리'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접미사 '-이' 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제23항 [붙임] 규정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손톱깎이'는 '손/톱/깎-/-이'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 합성어이다. '깎이'는 어간 '깎-'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제19항 규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⑤ '지붕'은 명사 '집'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웅'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제20항 [붙임] 규정에 따라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겹겹이'는 명사 '겹겹'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제20항 규정에 따라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⑤이다.
② '무덤'은 어간 '묻-'에 접미사 '-엄'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으로 제19항 [붙임] 규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웃음'은 어간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으로 제19항 규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③ '꿀꿀이'는 '-거리다'가 붙는 어근 '꿀꿀'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제23항 규정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마중'은 어간 '맞-'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웅'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19항 [붙임] 규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④ '끄트머리'는 명사 '끝'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으머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제20항 [붙임] 규정에 따라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마개'는 어간 '막-'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애'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으로 제19항 [붙임] 규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10. 정답 ④
'거름'은 '(땅이) 걸다'의 '걸-'에 '-음'이 붙은 형태이지만, 본뜻에서 멀어져 '비료'의 의미로 쓰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거름'으로 적는다. 이때 '-음'은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이다.
① '목거리'는 '목이 아픈 병'이라는 뜻으로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②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이따가'도 어원적인 형태는 '있- + -다가'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그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③ '같이'는 어간 '같-'에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가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으로 제19항 규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⑤ '고랑'은 명사 '골'에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 '-앙'이 결합한 것으로, 20항 [붙임] 규정에 따라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11. 정답 ③
'드러나다'는 '들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5항 [붙임 1-(2)] 규정에 따라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① '울어서 눈이 빨개졌다.'에서 '울어'로 적는 것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는 ㉮의 제15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먹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다.
②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구분되도록 하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의 모양이 일관되게 고정되어서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 독서의 능률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④ '틀어지다'는 '틀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벌어지다'도 '벌다'의 본뜻('틈이 나서 사이가 뜨다.')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⑤ '아니오'는 어간 '아니-'에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가 결합된 것으로 제15항 [붙임 2] 규정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마찬가지로 '오시오'도 어간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가 결합된 것으로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12. 정답 ⑤

무단배포금지

'죽다'에서 파생된 '주검'은 어간 '죽-'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엄'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으로 ⓒ에 따라 어간의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① '묶다'에서 파생된 '묶음'은 어간 '묶-'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으로 ⓐ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② '밝다'에서 파생된 '밝히'는 어간 '밝-'에 접미사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으로 ⓐ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③ '막다'에서 파생된 '마감'은 어간 '막-'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암'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으로 ⓒ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④ '열다'에서 파생된 '무녀리'에는 '열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13. 정답 ②
'나머지'는 용언의 어간 '남-'에 접미사 '-어지'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으로 한글 맞춤법 제19항 [붙임] 규정에 따르면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므로 '나머지'로 적어야 한다. '바가지'는 명사 '박-'에 접미사 '-아지'가 붙어서 된 말로 한글 맞춤법 제20항 [붙임] 규정에 따르면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므로 '바가지'라고 적어야 한다. '바가지'는 선지에 제시된 제19항 [붙임]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예로 볼 수 없다.
① 한글 맞춤법 제6항 규정에 따르면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어야 한다. 그 예시로 '같이'와 '해돋이'를 들 수 있다. '같이'와 '해돋이'는 각각 [가치], [해도지]로 소리가 나더라도 '같이', '해돋이'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조항과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다.
③ '떡을'과 '꽃만'은 각각 '떡/을'과 '꽃/만'으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 제14항의 조항에 적절한 예시이다.
④ 한글 맞춤법 제19항의 '다만' 조항에 따르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라도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멀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노름'과 '목거리'는 소리 나는 대로 '노름'과 '목거리'로 적어야 한다. '노름'은 '돈내기'라는 뜻으로 '놀이'라는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노름'이라고 적어야 한다. '목거리'는 '목이 아픈 병'이라는 뜻으로 '목에 거는 물건'이라는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목거리'라고 적어야 한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조항과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다.
⑤ 한글 맞춤법 제21항 조항에 따르면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했으므로 '값지다'와 '높다랗다'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값지다'와 '높다랗다'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조항과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다.

14. 정답 ②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 것은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하므로 ㉡에 해당한다. '좋고, 읊으니, 좇아'는 모두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된 것으로 ②번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절한 예시이다.
①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 것은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아닌 ㉡에 해당한다. '밭도, 여덟이, 옷에'는 모두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것으로 ①번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절한 예시이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과 예시는 적절하나 ㉠, ㉡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③ '몫몫이'와 '샅샅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③번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절한 예시이지만, '실없이'는 용언의 어간 '실없-'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③번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절한 예시로 볼 수 없다.
④ '바깥, 바가지, 싸라기'는 각각 명사에 접미사 '-앝', '-아지', '-아기'가 붙어서 된 말로 ④번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절한 예시이다.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과 예시는 적절하나 ㉠, ㉡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학습자료의 모든 것 EBS 분석·변형문제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⑤ '귀머거리'는 어간에 '-어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므로 ⑤번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없다. ⑤번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코끼리'와 '거름'은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인데, 그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므로 ⑤번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절한 예시이다. 또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15. 정답 ①

'졸음'의 접미사 '-음'은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어 내는, 즉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에 해당한다.

② '마중'의 접미사 '-웅'은 결합하는 어간이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에 해당한다.

③ '마감'의 접미사 '-암'은 결합하는 어간이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에 해당한다.

④ '주검'의 접미사 '-엄'은 결합하는 어간이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에 해당한다.

⑤ '쓰레기'의 접미사 '-에기'는 결합하는 어간이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에 해당한다.

16. 정답 ③

'오뚜기'가 아니라 '오뚝이'로 적어야 하는 이유는 어근 '오뚝'에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어 내는, 즉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 '-이'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오뚝이'로 적는 것이다.

① '오뚜기'가 아니라 '오뚝이'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적용된 것이다.

② '오뚝이'의 '오뚝'은 단어의 의미가 원래대로 유지되고 있다.

④ 그 말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기억할 때 얻는 이점이 별로 없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가 결합된 경우에 해당한다.

⑤ '오뚝이'의 '-이'는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 '-이'에 해당하며,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는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에 해당한다.

17. 정답 ⑤

ⓑ는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지라도 독서 능률을 위해 각각의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게끔 규정한 것이다.

①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는 한글이 소리글자(표음문자)인 것과 관련이 있다. 소리글자는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이므로,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② ⓐ를 적용하여 따라 적으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표기하기가 쉽다.

③ ⓐ에 해당하는 예로 '바다, 하늘, 나무'를 들 수 있지만, '꽃'은 표준 발음이 [꼳]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지라도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것을 의미한다.

18. 정답 ①, ⑤

① '노름'은 어간 '놀-'에 접미사 '-음'이 결합된 것으로, ㉮의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름'은 ㉮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지붕'은 명사 '집'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웅'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제20항 [붙임] 규정에 따라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제19항 [붙임] 규정은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를 모두 고른 것은 ①, ⑤이다.

② '마중'은 어간 '맞-'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웅'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으로 제19항 [붙임] 규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③ '무덤'은 어간 '묻-'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엄'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으로 제19항 [붙임] 규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④ '부터'는 어간 '붙-'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

무단배포금지